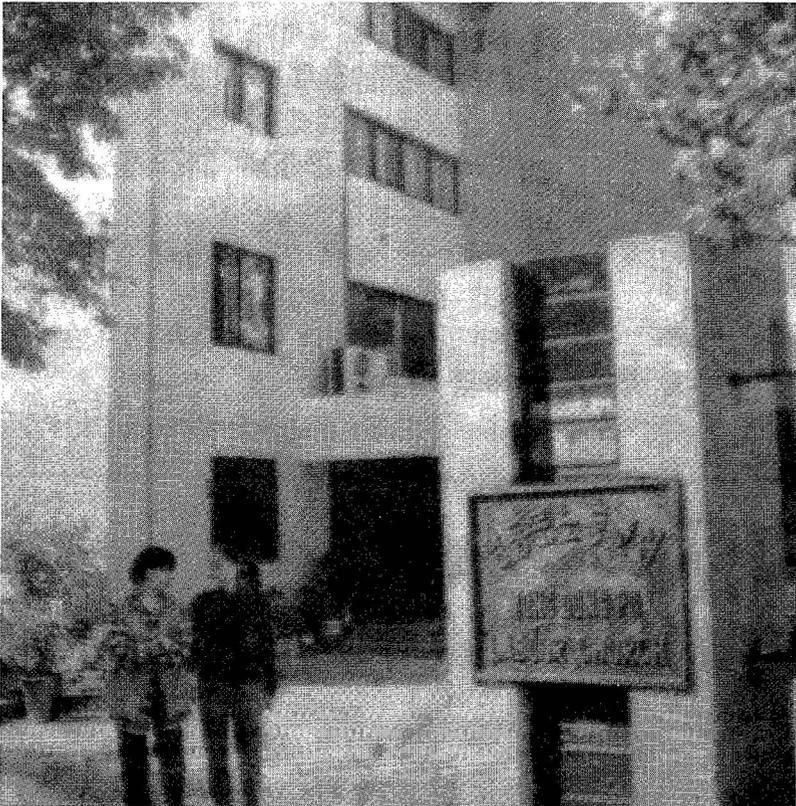


그 때 그 자리

영등포산업선교회- 70~80년대 노동자들의 보금자리

신철영



현재 영등포산업선교회 건물은 1978년 가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79년 7월에 준공하였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245평인 이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은 독일의 개신교 대외원조기관인 EZE에서 지원을 받았다.

영등포산업선교회는 이미 여러 해 전에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웠고 지금 산업선교회가 있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200여 평의 부지까지 매입하여 두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서 미루어지고 있다가 1978년 가을에서야 착공을 할 수 있었다.

건물을 지을 때 논의했던 것은 건물을 짓는 데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점이었다. 하나는 건물을 지으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운동에 쓰지 못하고 부동산에 묶어 두는 것이 효율적인 운동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건물을 갖고 이를 유지하게 되면서 운동성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였다. 그것이 기우였다는 것은 건축 후의 활동으로 증명되었다.

산업선교회 활동

한국에서 산업선교회를 시작한 것은 1958년이었고 예장(통합)의 영등포산업선교회, 청주산업선교회, 구미산업선교회와 감리교의 인천산업선교회, 경수산업선교회, 기장의 성수산업선교회 등이 있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 JOC와 함께 1970년대 초반 이래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에 한국노총과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면서 한국노총이 유신체제를 지지하고 그 안에 안주하게 되면서 민주노동운동의 정통성은 소수의 민주노조와 산업선교회, 가톨릭노동청년회 등의 지원세력에게로 옮겨가게 된다.

유신체제하에서 산업선교회의 활동도 많은 감시와 탄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산업선교회는 노동자들의 소모임에 주력하였다. 소모임을 통하여 1970년대 초 중

반에 방림방적, 한국모방, 남영나이론, 진로 등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먹는 회사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시도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예배를 거부하는 등의 운동을 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공안당국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1970년대 말 영등포산업선교회에는 원풍모방, 해태제과, 롯데제과 등에서 수백 명, 남영나이론, 대일화학, 진로 등의 사업장에서는 수십 명씩의 여성노동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남성노동자들은 수가 아주 적었으며 80년대 초반에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들은 5~10명 단위로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하였고, 이 소모임이 모여 회사별, 교대 조별로 모임을 구성하였다. 주로 20대인 여성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루면서 이들은 소모임을 통하여 노동교육, 교양, 취미생활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활동, 노동운동사, 다른 회사의 사례연구 등의 노동교육과 여성, 건강, 상식, 노래 부르기 등의 교양활동, 한자공부 등의 야학활동, 꽃꽂이, 음식 만들기, 인형 만들기 등의 취미활동, 노래반, 연극반, 풍물반 등의 문화활동, 다량취회, 공동구매조합 등의 협동조합활동, 치과진료, 건강상담 등의 의료활동과 예배가 주요한 활동이었다.

당시 안기부, 보안사, 경찰 등의 각종 공안기구에서는 산업선교회의 '의식화 학습'에 대하여 대단히 관심이 많았다. 관심의 초점은 "도대체 어떤 신비한 방법을 통하여 의식화를 시키기에 순진한 노동자들을 투사로 만드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조사를 해 보고는 실망들을 하였다. 아무리 그 내용을 들여다보아도 그리 특이한 것이나 은밀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이들은 조사 후에도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곤 하였다) 그들은 정말로 사람이 서로 신뢰를 주고받고, 인간적인 따스함을 나누며, 현실의 참혹함에 대하여 분노하는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교육보다도 더 힘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산업선교회 활동의 의미

산업선교회는 교회 선교기관의 하나이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에는 URM이라는 하나의 분과를 구성하여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초기에는 도시(Urban, 도시화로 생겨난 빈민 등을 위한 선교)와 산업(Industrial,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선교를 합하여 도시산업선교로 출발하였으나 이후에 농촌Rural이 보태어져 도시산업농촌선교 URM가 되었다.

1970년 초에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전태일의 분신 사건, 김진수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런 현실을 당시 정권은 유신이라는 독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한국노총이 유신체제에 굴복하면서 안주하게 되자 산업선교회, 가톨릭노동청년회 등의 종교조직과 몇몇 민주노조들은 노동운동의 정통성을 이어오면서 갖은 탄압을 당하였다.

산업선교 활동은 민주노조 운동을 지원하는 역할 외에도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 무권리 상태를 교회와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고립되기 쉬운 노동운동과 교회운동, 사회운동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교회와 교회 밖의 많은 지식인들이 노동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매개를 형성하였다. 또한 세계교회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국 노동자들의 운동과 이에 대한 정권의 탄압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을 이념적인 좌익으로 몰아서 공격하는 정권에 대하여 일정 정도 안전막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정권에서는 도산(도시산업선교회의 줄임말), 도산계라 하며 좌익으로 몰아가는 공세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자체가 근거 없는 악선동에 불과하였다. 이런 활동이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시대의 노동운동의 정통성을 지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해태제과 8시간 노동운동, YH노조사건

70년대는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해태제과, 롯데제과도 주야로 12시간 맞교대를 하였다. 여성노동자들에게 야간근로와 12시간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었지만 이를 신경쓰는 기업은 거의 없었다. 79년 봄철 수련회를 통하여 해태제과, 롯데제과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해태제과에서 8시간 노동운동을 시작한 것은 여름철이다. 여름철에는 커다란 오븐에서 나오는 열기로 현장은 찜통이 된다. 또한 여름철은 과자의 비수기이므로, 매년 7,8월에는 노동자들이 잔업을 거부해도 회사에서 이를 특별하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1979년 여름에는 여름철이 지나도 잔업을 하지 않고 8시간 근무 이후에 퇴근을 하면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장한 것이다. 해태제과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일하고 잔업을 거부하는 가장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하였다. 회사에서는 처음에는 회유를 하다가 안되니까 남성노동자들을 동원하여 폭력으로 퇴근을 저지하려 하였다. 매일 저녁때와 새벽에 여성노동자들은 전쟁을 치르면서 온몸에 시커멓게 멍이 들어 산업선교회로 왔으며, 와서는 그날 당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고는 휴식을 취하였다.

해태제과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운동이 한창 달아오르던 때에 YH사건이 터졌다. YH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하다 강제해산(79.8.11)을 당하고, 그 와중에 김경숙이라는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다.

YH사건은 정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제 1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 경찰이 난입하고 국회의원들에게까지도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다가 김영삼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되었다. 이 사건은 부마사태, 10·26으로 연결되었다.

숨가쁘게 진행된 일련의 과정은 해태제과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우선 세상의 관심이 모두 YH사건으로 쏠린 것,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인명진 목사가 YH사건 배후조종자의 하나로 구속된 것, 박정희 대통령이



영등포산업선교회 강당

의 특명에 의하여 도산계가 활동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한 것, “도산이 침투하면 회사가 도산한다”는 반反산업선교회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벌어진 것 등이 모두 해태제과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술한 노동자들이 폭행당하고, 회사를 퇴사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태제과뿐만 아니라 11개 식품업체 전체가 80년 초에 8시간 노동을 행하면서 이 운동은 막을 내렸다.

광주에서 온 전화-5·18

불안하게 진행되던 80년 서울의 봄은 5·18로 막을 내렸다.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는 수련회 도중에 노동자들과 인명진 목사가 계엄군에 의하여 연행되어 행방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이때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광주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것이었다. 계엄군에 의하여 고립된 광주에서 전화가 걸려와 상황을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광주의 현재 상황, 사람들이 희생당한 이야기, 도와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전화로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었다. 당시는 모든 마스크가 통제되고 있던 상황이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화로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전부였다. 참으로 안타깝고 무력감을 느끼는 시간들이었다.

5·18 이후에는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 경찰서 등에서 담당이 배치되어 매일같이 5~6명씩이 주변에 집을 치고 감시를 하였으며, 80년 말에는 민주노조와 산업선교회에 참여하는 핵심적인 노동자들을 대거 합수사로 연행하여 조사하고 남자들은 삼청교육대로 보내고, 나머지는 사업장에서 해고했다. 영등포산업선교회 회원 중에도 대일화학, 롯데제과 등에서 여럿이 해고를 당하였다.

반反산업선교 캠페인

79년(해태제과, YH사건)부터 시작하여 82년(콘트롤 데이터 공장철수), 83년(원풍모방 노조파괴)에 대대적으로 반산업선교 캠페인이 전개되었다. KBS, MBC TV에서 특집방송으로 산업선교회에서 어떻게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면서 노동자들을 의식화시키는가 하는 내용을 과장하고 각색하여 방영하고, 각 신문에서는 공안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인용하여 커다란 박스 기사를 시리즈로 내곤 하였다. 홍지영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선교는 무엇을 노리나'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공단지역에 살포하였고, 각종 교육활동을 통하여 도산계(그들은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이렇게 불렀다)의 악랄함을 선전하였다. 이럴 때면 염려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곤 했다. 그러나 정작 산업선교회 자체는 태풍의 눈처럼 조용하였다.

도시산업선교 Urban Industrial Mission 활동은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전개되고 있고,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통하여 네트워크가 형성되

어 있었다. 따라서 정권은 이런 산업선교회 활동을 좌익 용공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심지어는 WCC와 NCC를 용공으로 몰아가는 무리수까지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권이 앞장서서 산업선교회를 탄압하는 한국에 대하여 국제적인 연대와 지원은 더욱 강화되었다.

《노동자》, 《노동자신문》 그리고 후보

산업선교회에서는 몇가지 출판운동을 하였다. 《노동자》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4호까지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이념적인 색채를 배제하고 노동현장에서 조직운동을 확대하는 방법 등에 집중하였다. 《노동자신문》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을 노동자들에게 해설하였던 소책자였다. 《노동자신문》을 발간하면서 송진섭 간사(현 안산시장)가 수배를 당하고 안기부에 끌려가 곤욕을 치루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성문밖교회 후보를 통하여 노동자들이 현실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의 집회장소

영등포산업선교회는 2층에 있는 큰사랑방(50여 명)과 3개의 온돌방(10여 명씩)을 회원들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 빌려 주었고, 여유가 있으면 농민단체, 교회청년단체, 학생 등에게도 개방하였다. 그리고 3층과 미니 4층이 있는 강당에서는 각종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한 층의 건평이 65평밖에 안되는 이 건물에서 2천여 명이 모이는 노동자집회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노동절집회, 각종 규탄집회, 노동자 문화행사 등이 이 작은 건물에서 열렸다. 집회 장소를 구하기 어렵던 때였지만 노동자들은 영등포산업선교회 건물을 이용할 수 있었다.

경찰에 의하여 집회가 원천봉쇄를 당하는 경우에는 옥상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여 정부를 규탄하기도 하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마치고 노동자들이 대거 밀려나오며 자연스런 데모를 하기도 하였다.

민주노조의 발전과 산업선교회

1987년 민주노조운동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민주노총이 결성되고, 한국 노총이 민주화되면서 노동운동에서 산업선교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이것은 사회가 정상화되었다는 징표의 하나이다.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권이 나서서 산업선교회를 탄압한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비정상성을 폭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산업선교회는 노조운동에 관여하기보다는 영세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교육이나 지원, 산재 직업병 등에 대한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등 현재의 조직노동자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의 일들에 집중하여 그늘진 곳에 가려진 노동자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

신철영 cyshin@ccej.or.kr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 영등포산업선교회 교육책임간사,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공동의장,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등 역임. 저서로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공저)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시민운동과 시정참여, 경인지역 산업화와 삶의 질」, 「실업대책에 있어서 NGO의 역할, 금융위기와 NGO의 대응」 등 다수가 있다.